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解放運動者의 强固한 一念

寄怪한 社會相을 諦觀하며

一

感情上意欲上大衆으로더부러全然히背馳되고또沒交涉한現下朝鮮의强大한權力이繼續的으로大衆을箝制하고또統制함에不拘하고大衆은항상그에對한遠心的傾向을表示함을說하엿스며 또는그의機械的秩序가자못整然한듯한바잇지마는그의思想的叛逆과및道德的無政府의傾向은날로더욱助成되는形勢임을說하엿다 또그의擁護가漸次顯著할것을指摘하야 그의歷史的必然의理勢임을表出하고 그로因하야우리의解放運動이 決코混亂狀態를나타낼것을指摘하야 그의陣容을固守하고一貫한解放運動을持續할戰友들의苦心 勝形및그結束은더욱徹底하여야할것을提唱하엿섯다 그러나今後吾人의當面할歷史的新形勢가그대지容易치아니할것을預想하는吾人은드듸어率爾히一筆을더질수업다

二

吾人은岩泰島의小作爭議에서그의純然한經濟的階級戰의對立한形勢가特殊權力의擁護下에畢竟一個의特權者의勝利에돌어가려하는實例를보앗고 珍島의小作爭議에서民族이라는血緣의關係와및槪念의紛雲을超越하야東拓、興業會社및金、李等의地主卽特權者流가取得의利得을目的으로階級的團結을現出하는實例를보앗스며鳳山爭議一帶의農民과諸求가殊異한東拓의態度와移民의活動에서또는一派의行動이漸次로全鮮에擴張되는實例를보앗다 그리고그一派의行動은階級的또는經濟的漸進主義의活動의標本을보앗고 國民協會各派聯盟과大同團等에서 種族的또는政治的의 走狗의活動을보앗다 그리고今後만일反動의氣勢가자못增進됨이 잇다假定하면 上述한五件의類型에屬한民衆에게對하야不利한現狀은더욱助長되다할것이다 吾人은이에對하야 民衆의이름으로警語를發하는이보담은 차라리民衆으로더불어 그를戒嚴하고또는무엇을覺悟함이가장忠實하고또實明한일인것을밋는다

三

砲火를무릅쓰고 敵陣을突貫하야서 尸骸를諸塲에버던지기는매우어려나 그러나臨事하야懼하고慮를하야策戰을달리하며入關九起서强固한一念을實現하기에獻身하는것은또戰法의上乘이다 吾人은이제種族的또는階級的의功利的妥協論者가그를誘引하는新形勢에呼應하야右傾한機會主義者인것을表明함에에그의民族運動과및社會運動의兩大陣營에는적지안흔隊伍의再編成을要할것이오 眞正한戰士는이미陣地를固守하는戰友가모다貴寡人으로階級人으로그의優越한敵手와對立하야 右側에서招呼하는民衆의叛逆者들의갈싼秋波와및功勞衡의提出에遭遇한것을發見할것이다 또는孤危와窮乏에因하야惰然히戰意가消耗되는離散하는戰友도적지안케發見할것이다 그것이一九○七年으로同一○年代까지「러시아」의識士들이얼수잇는經驗하든것보담도매우顯著한바잇슴을經驗할것이다 그러나叛逆吏와武裝한憲兵隊의威嚇下에對立한無産者들의運命및그態度는그의當然한歸結、어떠한安定地에到着하기까지持續될것이다 그는人爲的으로 어찌할수업는必然한歷史的理勢일것이다 그러나吾人은『할수잇스면이盞을避하게하소서』를懇乞할것도업시畢竟은到着할彼岸의信地를바라보며그의運命의義를受또安處할밧게업슬것이다

四

忠實하고再堅하고强固한念信과및信觀일犧牲的精神에依하야團結된勞働大衆의支持는그의戰線의先驅者에게强大한努力을供給한다하엿다 最後까지忠實하고再堅하게應戰의動力을지을者는現狀에서利益을追求할수잇는陰謀的妥協性에富한有閑階級의紳士識者및『有力者』들이아니라朴訥、質野한大部의農村勞働者일것이다 그러나그들의 無智함과溫順함은先驅者된者의가장痛心할難題일것이다 死線에直立하야最後의抗爭을하는無産大衆과및中年과『홍치』의靈驗을盲信하고遺妄한難難에게追從하는可惜한群衆은今後에도얼마동안그異樣의 對照를지을것이다 이는『漢氏에게로돌어가거라?』이는지금外來한模倣品의境域을벗어나서각각先驅者들의省擧하고또堅實한實行의世界로轉化하여야할것이다 사람이란부숩고또부접은것이다 그가孤立한各個人으로서空漠한敵國의曠野에彷徨할적에그는이내大勢에同化또는埋沒될可憐한微物이다 그러나그가各各聯結한屯田兵으로서될히隨處間에散處할때에는만흔忠直한戰友를訓練하는下士官이될것이다

五

兵家의말에依하건대戰陣의大勢를決함에는優秀한一二의總帥보담도無數善良한下士官을要한다한다 吾人은이제都會의白面靑年들의壇上에서의咆哮보다도遠村에離處한黑面赤手의素朴한靑年의作業場의談話와및燈下의談話가돌이어第二期의動員에出應할新戰士를醞出케할것임을밋는다 아아今後에는色態가가장猶纔한兩個의新陣營이가장慘憺한對戰을挑發할것이다 吾人은不幸히이에遭際하엿다 아니吾人은多幸히이前人未蹈의新境地를우리의時代에開拓하는眞烈壯快한感激에살게되엇다

國際法廷參加困難

米上院議員「스」氏演說

(華盛頓發) 國際法廷參加派의急先鋒되는上院議員『스완손』氏는今議會中에는再次諸問題로押進치안는다고하엿다大抵此는諸提議가現在實行困難으로次期議會까지는成功의困難함을示하는것이다

米艦爆沈

不正事件論爭

(華盛頓五日發)米國下院에서演說하되米國海軍은戰時에航空機의價値에關한輿論의決定意見을得하고자廢艦『와싱톤』號의爆沈에際하야모래를채어서爆發되지안는爆彈을故意로投下하야世人을欺瞞하고자努力하엿다고云한다右에對하야航空副長『미첼』少將은六日下院에서航空機特別調査委員會에出頭하야事情을說明할것을命하엿다그리고陸軍長官『우이―크스』氏는『미첼』少將에게『와싱톤』號爆沈事件에關하야同少將이此를非難한事實에對하야其立場을明瞭하도록命하엿니 一方『미첼』少將은若海軍側의抑制함으로防害되지안햇엇스면『와싱톤』號는四分間으로爆沈되엇스리라고斷言하엿다

米女官吏採用

新規는禁止

(華盛頓發五日) 米大統領『쿨릿지』氏는現在婦人을任命한處와및婦人을任命하는前例잇는官吏位置等에는繼續任命할터이나新聯邦官吏의任命에는新規의婦人을採用치안는다고云하엿다

希土紛爭呈訴事件

佛伊에서希首相에게勸告

(루쓰三日無電五日發) 英國側으로聞知한바에依하면土耳其가希臘의提議한希臘大司教追放事件에關한希土紛爭을海牙國際法廷의判決에附託하자는案을拒絶한外에希臘은非常히憤慨한中이오이로因하야英佛兩國公使는希臘首相을訪問하야對土要求를緩和코자勸告하는中이다

普國首相辭任

後任은十日選擧

(나엔드六日發) 過般再選된普魯西首相『마르크스』氏는議會에多數를占한聯立內閣의組織이到底不可能임을知하고辭表를提出하엿는데右에依하야再次首相選擧를十日에擧行하게되엇스며今大는「라인」란드州知事「오―데오」氏가選擧되여超然內閣을組織하게되리라고信한다더라

衆院議事日程

(東京電) 七日衆議院議事日程은左와如하다더라

午後一時開會

日程第一 米穀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第一讀會)

日程第二 米穀需給調節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第一讀會)

日程第三 決算案(鐵道既定計劃遂行의件元田肇外十六名提案)

三派決定事項

(東京電) 定例三派交涉會에서는左의事項을決定하엿더라

一、七日의日程은政府提出인米穀法改正法律案을委員附托으로하고次에豫算關係의一、二法律案을審議한後本黨提出인鐵道決議案을討論否決할事

一、議院法及議事規則의改正은三派로부터議長에게進言하야事務局으로부터參考案을提出케할事

一、大石氏外五名의懲罰事犯은登院停止二週間에處할方針으로懲罰委員會에서審理를할것이 有의結果原惣兵衛(本黨)氏의議論은二週間을延加하게되는故로結果四週間의登院停止가되리다더라

普選審査遲延

衆院提出尙遠

(東京電) 普選에對한樞府의第十八回精査委員會는五日午後事務所에서開하엿스나審議가未了한대로散會하엿는데六日의委員會에서는選擧日及選擧權에對한態度가決定되지못하얏스니選擧權을二十五歲로被選擧權을三十歲로修正코자하는議가有力하야態度가決定되지못하면七、八兩日의委員會를休會하고其間委員의分硏究하야九日로부터委員會를續行할豫定인바右와如히討議에意外의日時를要하게된結果本會議上程도十八日까지遲延될듯하니二十一日에同案을衆議院에提出코자하는政府의豫定에一大齟齬를生하게되엿스니衆議院提出은아마二十日頃이되리라더라

法相親任式

七日擧行

(東京電) 明七日左와如히親任式을行하리라더라

司法大臣 正四位勳二等 小川平吉

東京勞農公館

東京府가管理

(東京電) 日露協約의結果蘇聯에잇는露國公使館은當然勞農政府에引繼될것이나協約의批准後勞農公使가着任하기까지는建物의管理는東京府로하야금此에當하게되여今回外務省으로부터東京府에命令을發하엿다더라

治安法案

議會提出在近

(東京電) 治安維持法은內務司法兩省의意見의一致되엿슴으로六日若槻內相으로부터與黨三派幹部에게案을內示하야諒解를得한後直時閣議에附議決定하야來議會에提出하기로決定하엿더라

鐵道決議案

七日本會議上程

(東京電) 政友本黨의鐵道既定計劃遂行決議案은七日에上程되여本黨에서는同案으로分論戰을試하게되엿는데說明은木下謙次郞氏贊成에는大石大氏歲國三四郞氏大國第三郞氏가此에當하기로決定하엿더라

貴院改革案

政府決定을急急

(東京電) 貴族院制度改正에關한政府의決定案은橫田法相의病氣로因하야一月三十一日以來何等進行이업서其間疑惑을生케하엿슴으로政府는此疑心를解키爲하야該案決定을急急히하는中이라더라

畢竟解散

無産이라는 두글자만보아도大驚

綾州無産青年

全南和順郡綾州無産青年黨은創立된以來에綱領問題로幹部를警察이取調하엿다함은旣報한바와갓거니와其後에도警察의干涉이極甚하야綱領과無産두자가매우不穩한것아니라危險性이有하니解散하고勞農會로合하라는命令으로因하야同會에서는今月一日에解散하는運命에當하엿다더라(綾州)

咸平勞働親睦

九箇事項決議

三日委員會에서

全南咸平勞働親睦會에서는지난三日午後三時에咸平邑中鐵藏氏宅에서委員會를開催하고左記九箇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

一、會名을咸平勞農聯盟으로改稱할것

二、會則修正과宣言綱領을作成할것

三、各區에委員을둘일

四、會館을建築할일

五、會館建築費는四百圓으로定하야會員全部가負擔하고建築費와會費徵收方法은各區長이徵收하기로할일

六、小作問題에對하야는無故히移動을못하기로하고其他附隨問題는追後討議할것

七、會員을整理할일

八、本會의債務를整理하야債務를相殺할일

九、海陝勞農聯盟會加盟與否를決定할일(咸平)

養正義塾의美擧

咸平農塲小作人에게 種租를無利貸付한다

京城養正義塾、咸平農塲主任柳晶淵氏는罹災小作人救濟策으로鶴橋、嚴多兩面小作人中災害가甚한近七十戶에滿洲粟一斗式을今月中에無料配付하며또한種租를無利貸付할計劃이라함으로一般의稱頌이藉藉하다더라(咸平)

湖銀配當은八分

光州湖南銀行第九回定期株主總會를去一月三十日午後二時에새로建築한本店樓上에서開催하고昨年下半期의營業報告書와貸借對照表、財産目錄及損益計算書를承認한후株主의配當은年八分의良好한成績을得하엿다고(光州)

光州産業會社總會

光州湖南産業株式會社에서는第五回定期株主總會를七日午前十時에同社營業所內에서開催한다는데利益金配當은업다고(光州)

移轉紀念으로 共進會

釜山에서準備

釜山日人側에서는道廳移轉을紀念으로第二回物産共進會를開催할豫定으로目下準備中이라는데時日其他仔細한狀況은아즉알수업다더라(釜山)

姜氏의敎育熱

全北任實郡只沙面湧山里姜凡熙氏는同里無産靑年子弟들의學資의關係로배우지못하는것을遺憾으로생각하고今般에夜學會를義設하고甲乙兩班으로分하야普通學校二學年科程으로敎授한다는데同夜學會의經費는全部自己가負擔하고敎師는吳信哉、姜信卿兩氏를請聘하야熱誠으로敎授하는바生徒의數가벌서四十名에達하얏다더라(南原)

投稿歡迎 啄木鳥

所謂時局講演을 한다고襄陽왓던 朴海遠에게

◇君아?나는君을沒知識沒精神한天痴라고生覺한다所謂普天敎라는것은무엇이고時局大同團이라는것은무엇이며또한日鮮融和라는것은무엇이냐?엄배진개소리냐?

◇天痴인君아?그래君等이全鮮的으로돌아다니며時局에對한講演을한다고 이階級差別이만흔社會의人間들이大同團結이되며또한假定日鮮融和가된다고 이飢寒呼泣의死線에立한우리가幸福의生活을할터이냐?차라리할일이업다고살길이업거든木枕이나流水에裂을날라고말어라

◇無知沒識한天痴君아?君의말을듯고君의行動을보니 이社會에서埋葬해버릴賊臭가敎徒갓지도안코 또切實한日鮮融和者갓지도안터라 그원수의목구멍때문에 더러운金錢에몸을판(賣身)것갓더라 아니갓기보다그러터라

◇君아?講演인가무엇을할때에그래엇더케하는말인지 도모지語不成說에要領을不得이니그것이所謂時局에對한講演이냐?그것이적어도大同團結、日鮮融和를目標한다는말이냐?和를目標한다는말이냐?原根木이를읽은것은更說할必要도업다 그러나君自身에限하야서는넘우도無知識無資格이며또한講演後聽衆靑年이君에게가서日鮮融和의利害關係를問한즉答辯이窮하야舊日한態度로讓州하니그래그것이또한所謂講演士이냐?

◇襄陽의敎導를주어슬것이로다 되는天痴인君의더러운몸에俯伏한손을대이기가앗가워서말이냐거니와 다시는新良한羊과가튼地方靑年들에게中毒을시키지말고良心이잇거든하로밧비그團을거더치우며 그따위思想으로그따위말을배앗지말어라 다시는新聞紙上을더럽히지말기를바란다(襄陽一靑年)

홍치敎徒에게

◇이醉生夢死之徒여傾耳聽之어다 이時代를어떠한時代로아느냐東西가隔增이요各國이相競하야文明을入하며 知識을交換하야一步라도 남보다前進하기를競爭하는 時代인줄을모르고 雜鑑錄을妄信하는鷄龍泰夢에甘睡하는無知愚者가끔무리들이여 귀가잇거든들어라

◇지금은二十世紀이다天涯萬里를咫尺가티다니며學問과技術을硏究하야不思議한物件을발로發明하며擴大衛增하는技術이曆을出하는此時에잇서서 너희말과너희잇는바와가티車天子가鷄龍山도읍을한다하더라도너희의상토장이 너희의제물黃金이나 人발벼이 너희酒桶肉袋 너희衣裳飯囊이무엇으로新朝廷을組織하며무엇으로新政治를施行하라느냐?

◇不俁土鷄만못하고犬豚만못한愚蠢들아車哥의邪欺手段에欺瞞되여서財産을蕩敗하고父母妻子를離散에無主鬼를만드는 이蚩屍等아속앗스면 너희나속고그만두엇이지 너희所謂講演이무엇이며演說이무엇인다?虛虛打擊이요人辱說이라 너희는有目不見이오有耳未聽하느냐?너희몸에生命이란그것이남엇슬때에 그만그치고自覺할지어다反省할지어다 너희도二千萬同胞에참예한一分子이기에可惜히녁여 揭錄을놀어警戒하노라(全南衛生)

平南水産總會

七個議案無事審議

鎭南浦平安南道水産會總會는開催豫定日에서二日을延하야지난三日正午부터鎭南浦府廳樓上에서開催되엿는데同會會長인海邊內務部長은勿論其他下村産業課長龍岡郡守車宗鎬氏、江西郡守金相敷氏、不原郡守金永弼氏安州郡守嚴昌燮氏等多數來賓의臨席下에左記議案을審議한後同三時半頃에散會하엿다더라

▲大正十四年度豫算에關한件

▲敎議規定改正에關한件

▲經費分賦收入法改正의件

▲會則改正에關한件

▲大正十二年度收入決算及事業報告承認의件

▲大正十三年度豫算追加更改의件

▲委員選任의件(鎭南浦)

兩公普校에學藝會

◇密陽 密陽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五日에學藝會를開催하엿는데千餘名의觀衆으로滿員의盛況을呈한後學父兄會를開하고學校增築件과入學生의件을協議하엿스며(密陽)

◇三浪津 三浪津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五日에學藝會를開催한바亦是滿員의盛況을呈한後學校擴築의件을決議하엿다고(三浪津)

洛東江沿岸交通을

便利케하라는三氏의活動

洛東江沿岸에交通을便利하게하기爲하야兩昨年三月頃부터三浪津金鍾明、川波藤太郞、名倉明五郞三氏가合同하야滿走船一隻으로三浪津으로부터昌原南旨外지每日에一次式往復케하야오든바到底이것만으로는다收容할수가업슴으로前記三氏의主唱으로株式會社를組織하야大規模로하고자方今總督府에補助金을請求하고各地方에株主를募集하는中이라더라(密陽)

隼鳩兩船就航披露

朝鮮郵船會社에서는朝鮮汽船會社에提携하야釜山、麗水間을急行連絡케할計劃으로今船에隼鳩兩船을來六日부터就航케한다는데朝郵釜山支店長은各通信記者及釜山有志一同을五日正午에招待하야盛大한披露를하엿다고(釜山)

金泉金組評議員會

附議事項三件外一件

金泉金融組合에서는評議員會를去三日下午七時에本組合에서開催하엿는바評議員側으로議論이百出하야同十二時半에閉會하엿다는데決議事項은如左하다더라

一、組合員加入의件

二、給與規定改正의件

三、十三年度豫算追加의件

四、理事身元保證에關한件(金泉)

安東金融會帳末

安東縣에서朝鮮人이經營하는金融會의客月末帳末은如左하다더라

▲預金部

定期預金		二〇、六〇六、七一〇
貯蓄預金		一、二七七、二五〇
別段預金		二、〇五八、七二〇
據置預金		一四、三四二、六八〇
計		

▲貸出部

保證貸附		四七五、二四〇
動産貸附		三六、四〇三
不動産貸附		二三、八七五、一三〇
當座貸越		一三、三八三、五九〇
手形貸附		七〇〇
割引手形		二、一〇五
荷爲替手形		五、五九〇、二四〇
計		九二、五三五、三〇〇
當座預金		三、一八四、九八〇
通知預金		五、〇〇〇、〇〇〇
現金		一、二七五、四二〇

(安東縣)

流氷으로 南浦今卜間休航

鎭南浦汽船會社經營의鎭南浦今卜間每日一回往復定期航船營業은近日流氷이增加하야危險함으로去一日부터休航하고그代로木船을不定期로就航케하엿다더라(平壤)

平壤少年이 南浦에서歌劇

天道敎少年會主催로

平壤天道敎少年會에서는오는陰曆十五日(七日)에來南하야碑石里天道敎宗理院에서正月마지막少年歌劇大會를開催할터이라더라(鎭南浦)

安宣敎師轉勤

黃海道郡

瑞興長老派宣敎師安斗華氏는黃海老會內에三年間勤務하다가今番慶北老會로轉勤한다는데本月五日下午一時二十分에多數人士의餞別裡에서大邱로出發하엿다더라(瑞興)

黃州鄕校掌議選擧

지난二月五日正午에黃州郡廳樓上에서鄕校掌議候補者選擧를行하얏는데選擧方法은無記名投票로하얏고參席者는儒林三百餘名이엿스며當日에被選된者는左와如하다더라(黃州)

▲第一區 李東淳(七六點)

▲第二區 李宗淳(四四點) 李韶煥(六三點)

▲第三區 盧承鉉(二一點) 李興徽(六一點) 金永振(一六點)

▲第四區 尹炳根(二六點) 權東赫(七點)

▲第五區 韓泰一(六三點) 趙啓烈(六三點)

▲第六區 安達仁(二八點) 安錫鳳(二七點)

寧邊幼年歌劇大會

本月四日下午七時半에寧邊天道敎宗理院에서寧邊幼年主日學校主催로各敎會에서聯合幼年歌劇大會를開催하고各敎會幼年主日學校生徒들의歌劇이잇섯는데司會者李振夏氏의司會로順序가進行한바其中에幼稚園어린동모들의遊戲와童話는大한喝采를受하엿고「어린音樂」과「어린母女」라는歌劇은一般에게만흔늣김을주고同九時에閉會하엿더라(寧邊)

安東縣物價

二日安東縣主要物品時勢는如左하다더라

▲錢鈔部

鎭平銀現物	金	二、〇三〇
大洋錢一圓	同	一、五〇〇
小洋錢	同	一、一七〇
中國票	同	七三〇

▲穀物其他

滿洲粟上品百斤	金	八、二〇〇
中	同	八、〇〇〇
滿洲粟下品百斤	同	七、五〇〇
蕎麥一石	同	一〇、〇〇〇
赤豆一石	同	二三、七〇〇
綠豆一石	同	二〇、八〇〇
黃荏一石	同	三一、八〇〇
高粱一石	同	九、七五〇
粗百斤	同	九、〇〇〇
精白米上品一石	同	三五、〇〇〇
玄米一石	同	二三、五〇〇
豆粕一片	同	二、三〇〇
平大牛皮	小洋	四八、〇〇〇
中皮	同	四二、〇〇〇
雜皮	同	三九、〇〇〇
京大牛皮	同	四八、〇〇〇
改良大牛皮	同	五三、〇〇〇
生肯魚百斤	金	一二、五〇〇
塩肯魚百斤	同	一一、五〇〇
生明太百斤	同	一二、五〇〇
海蔘百斤	同	一二〇、〇〇〇

(安東縣)

荷車에까지 말성이나

利原郡松端里에 荷車使用期限延長運動起함

咸南利原郡南面松端里에서는荷車使用期限延長運動을惹起하엿는데荷車使用期間은當局에서制限한三寸五分輪以內의荷車使用을猶豫하여달라는運動이며現今全郡內의荷車數는九百二十臺中四寸輪荷車로不過二百臺밧게못되는데當局의制限대로四寸輪以內의荷車七百餘臺를廢止식킨다고하면七百餘農家에三萬餘圓의莫大한經濟窮迫을當하게될뿐外라그影響이全郡에及하야經濟의大窮乏을當하는此際에實로空前의大打擊을바들것이며此가一部農家의問題뿐만아니라全郡의經濟的死活問題로一般民間의輿論이沸騰하야압흐로積極的運動으로그猶豫를

安鶴水利急工

今年六月에完成

安鶴水利組合은工事着手以來水害또는其大工事를擴張하야爾來窮境에빠서오던바今番에는本府及道當局에交涉한結果로物品補助의認可를어더徹底的으로工事에着手할方針을決定하엿다는데同水利組合은雨期에이르면水利로因하야工事가困難함으로結氷期를利用하야工事를完成할方針인데目下都給人을督勵하야作業中임으로는거도今年六月頃에는竣工되리라더라(元山)

禁煙違反者는 社交를斷絶

松端美風會組織

咸南利原郡南面松端里에서는有志諸氏의發起로美風振興會를組織하고第一着으로陰正初를期하야禁酒斷行을決議하엿는데小戶內監督者一人式으로두고嚴正히監視하다가만일違反하는者가有하면一切社交를絶斷하기로한다는데그會長은金若濂氏라더라(利原)

局子街에 新年男女演藝

엡웟靑年會主催로

間島局子街에잇는南監理敎會엡웟靑年會에서는지난一月二十七日부터同敎堂內에서新年男女演藝大會를三日동안開催하얏는데每日盛況을이루엇다고(局子街)

維新學校의 私普期成組織

咸南利原郡南面浦項里에잇는私立維新學校는距今十八年前에創設되야以來無疑職員諸氏의熱誠的努力으로維持하여오던바學校昇格問題를對議하기爲하야去一月十日에區域內有志數十名이同校講堂에集合하야議決한結果爲先私立普通學校期成會를組織하고實踐을期하기로하엿는데實行委員으로選定되엿다더라

委員長辛永鳳、常務辛宗奎、委員辛孝善、姜翊奎、辛秉翰、崔承極、吳應南、姜鉉表、金秉俊、辛宗燮(利原)

實現케하기를期하고近間에當局에陳情하기로되엿는데그發起人氏名은左와如하더라

◇發起人 金光濟、金秉烈、金相玉、金鍾勳、金在寅、金在爵、黃河淸、玄泰翰、玄閔天、崔亨敎、金秉佐(利原)

元山組銀 預金利率協定

來十日부터實行

元山組合銀行의預金利率은左와如히協定되얏는데二月十日부터實行하리라더라

◇韓一銀行及商業銀行◇

定期預金	年	七分以下
當座預金	日步	七厘以下
特別又는小口同		一錢四厘以下
通知預金	同	一錢七厘以下
別段預金	同	一錢五厘以下

◇朝銀、殖銀、十八銀行東拓支店◇

定期預金	年	六分五厘以下
當座預金	日步	七厘以下
特別又는小口同		一錢三厘以下
通知預金	同	一錢五厘以下
別段預金	同	一錢四厘以下

(元山)

最近의江原道一班

最近江原道의仔細한狀況을調査한바에依하야示하면如左하다더라

▲國稅其他收入總額百五十萬圓▲國費歲出總額貳百參拾五萬圓▲地方費其他收入總額七拾參萬圓▲國庫補助貳拾參萬圓▲金繰越金額貳拾參萬圓▲地方費歲出總額百二拾參萬圓▲道總面積千七百方里戶數二十二萬戶人口百二十萬人▲國費官吏三百十一人此俸給額年四十三萬圓同官員以下四百十九人此給料額年十四萬圓地方費吏員百五十三人此給料額年二十三萬圓警察官吏千七百三人此給料額年八十二萬圓▲官公署數道廳一郡廳二十一警察署二十二、警察官駐在所百六十五、面事務所一百七十八中等學校三小學校二十一、普通學校四十九、私立學校十七、慈惠病院二種苗場一、蠶業取締所一林業苗圃一、農業傳習所一、水産試驗場一▲各學校職員數及俸給額、高等普通學校四人八千九百五十二圓、師範學校六人九千八百八十八圓、農業學校六人一萬三百十八圓、公立小學校四十四人四萬六千六百八圓、公立普通學校三百四十四人二十三萬七千九百四十八圓▲各學校生徒數中等學校二百八十四人、小學校九百二十七人、普通學校一萬七千六百七十九人▲金融機關數金融組合聯合會一、村落金融組合三十二、都市金融組合一、殖産銀行支店三▲衛生機關數官立病院二、私立病院二、醫師(公醫)四十一人、醫生二百七十五人、其他九人▲道內生産物(十三年度)米七十萬三千一百八十一石、大豆三十一萬五千九百七十五石、粟二萬四千三百十九石、牛十八萬八千八百八頭、豚八萬一千五百六十七頭、鷄四十萬八千三十首(春川)

元山局爲替狀況

元山郵便局의客月中爲替取扱狀況은受入合計四千七百三十六口金額八十萬四千六十二圓、支出合計三千八百十九口 金額八十萬四千七圓인데細別하면如左하다더라

◇資金

受入	八〇、一九七、五〇〇圓
拂出	八九、二六三、九三〇

◇過剩金

受入	二七八、四一二、〇三二
拂出	一七、二四二、一〇〇

◇通常爲替

受入	五〇、五三三、一六二圓
拂出	一、二八九、一三三、五一八

◇小爲替

受入	一、一〇九、五〇〇圓
拂出	一〇、一五八、六九九

◇電信爲替

受入	三一、三四五、九七七圓
拂出	二八、八四二、七七四

◇外國爲替

受入	一、三一五圓
拂出	二三、七八四

◇郵便預金

受入	一七七、一二二、五三八圓
拂出	五八、二二一、三〇九

◇郵便振替貯金

受入	七一、二三一、二七六圓
拂出	二六、四四三、五二一

(元山)

客年咸南稻作狀況

稻付反步는增加하엿스나 收穫高는七千七百餘石減

咸鏡南道의昨年度稻作反別은四萬五千二十七町一反인데十二年度에比하면千二百八十七町五反을增加하얏스나收穫高는三十八萬四千三百四石으로十二年度에比하면七千七百二石이減少되엿는바其原因은旱災의被害도多少잇스나特히害蟲으로因함이라하며또한本道山峽地帶인甲山、三水、豐山、長津等四郡을除한外本道全郡의水稻奬勵品種作付反別은二萬二千六百八十九町一反이오在來種作付反別은一萬一千二百五十三町九反인바一反의收穫高는在來種六斗四升六合에比하야奬勵種은九斗七合의好成績을示하엿다더라(元山)

間島貯金社의好績

一株純利益이二十餘圓

間島龍井村同人貯金社는四年前一月에創立되야每月마다一株金一圓式五個年間貯金하기로하고株主四十一名의總株數二百四株를三個年동안繼續實行하야오든바지나간一月分에株主總會를開하고決算報告와任員改選을하얏는데拂込된株金總額은七千二百五十七圓이오三個年間貸付利息收入이五千餘圓에達하야株券發行을除하고도每株拂入金三十六圓에對한純利益配當이二十一圓이되엿고昨年가든不景氣한時期를當하여서도別로打擊업시지내왓는데貸付回收不能이千餘圓에達하나그리念慮할것은업다하며同日株券賣買에每株五十二圓의時勢를示하야完全한株券의價格을갓게되엿는데改選된役員은아래와갓다더라

社長姜觀洛(再選) 監事李敦洪 趙爾九 評議員朴贊旭 李承俊 許升八(新任)(間島)

咸興漁具數

咸興郡管內에所有한漁業及製鹽을主로한船舶은現在朝鮮型一三九、日本型一〇隻이며昨年中新造한것은朝鮮型二、日本型一隻이라하며漁具는日本人所有網三一隻、鮮人所有網五三三統이라더라(咸興)

咸南道土地入札

去二日咸鏡南道會計課에서는本道地方費土地賣入札에附하얏는대入札筆數百二十二筆同坪數九千九百六十坪中落札筆數六十七筆同坪數六千七百十一坪價格二萬三千五百六十九圓六十三錢이라더라(咸興)

間島因人狀況

間島總領事館監獄에收監되여잇는因人狀態에就하야調査한바에依한즉一月三十一日末現在의在監人總數三十三人이라하며犯罪別人員은左와如하다더라(間島)

强盜一九 恐喝一 紙幣僞造二 詐欺四 橫領一 窃盜六

◎納稅宣傳講話 成北會寧郡會寧面事務所에서는去一月三十日부터二月一日까지三日間納稅宣傳을하기爲하야當地劇場萬年座에서活動寫眞과및演劇으로面民에게觀覽식히엿는데觀衆은每日滿場의大盛況을일우엇는바잇섯다고(會寧)

◎林業、農業巡回講習 金浦郡에서는森林業組合의主催로本月六日부터十日間豫定으로管內、陽村、大串、月串、各面으로巡回하며林業及農業에對한講話를開催하얏다

◎短期養蠶講習會開催 京畿道金浦郡에서는蠶業主催로本月九日부터郡內各面으로巡回하야左記日字에依하야短期養蠶講習會를開催한다고

陽城面	同十二月九日부터
陽東面	同十五日부터
陽東面	同十九日外지
陽西面	同二十四日부터
	同二十八日外지

(金浦)

仁取 仲買總會

三大議案을留案

仁取仲買組合에서는五日午後四時부터取引所樓上에서臨時總會를召集하고米庫入證劵受渡의格付表及格下表容量遞減表審議의件과仁取新舊賣買를通繳賣買로變更如何의件과又는京城仁取供託問題의三案共히重大問題로觀하는同時에깁히考慮할必要가有함으로此三案을新期에로하야留案하기로하고同六時에散會하엿는데當日總會席上에는若松仁取社長은當務의出席하엿스며仁取及平壤株式理事出席하면左記와如하더라

一、證劵受渡問題에對하야는仁取平壤株式主任이此證劵에對한當局의意見如何를說明한後此에當日初見初로로부터出資하야村瀨受任으로하얏스나內藏及[illegible]하야 가잇다는反對說이有하야留案

二、通繳賣買問題에關하야小林委員長은同問題는米倍會로부터通繳實賣로變更하자는決議로議組合에陳情하얏다는說과同時에三井審査長의同陳情에對한朝議이잇섯다 그러나此에對하야相當한理由를具有치안으면不便利하다는說이有할뿐더러一方으로一二의反對說이有하야結局또留案하기로하엿고

三、京城仁取存廢問題에關하야仁取若松社長은暫許하되同俱樂部는從來부터取引所에서歡迎하여왓든바인데그동안新聞의批評도만흘뿐더러當局에서法令으로써取締할는지亦未知인즉別로各店의損益이無한此際를卜하야自發的으로廢止하는것이可하다하엿스나此問題는各店의莫大한利害關係가有함으로卽然決定치못하고또한猶豫로하야攻究하기로한後閉會하얏다

期米

後場亦軟弱

定期米 第二限 六日

今前場成地三十七圓七十六錢의止價와共히三十四圓五十五錢에軟弱히場을止한當市場은後場에入하야成地初付三十七圓七十二錢의四丁低落을受하고三十四圓五十六錢에場을始한後成地六十九錢으로三節六十七錢의低落을續하고五十錢外지崩落하더니成地五節七十二錢으로七十八錢의反騰을續하고結局六十一錢에場을止하니高低의差가十一丁이며成仁의鞘는三十七丁이더라

大阪場況

六日後場

今後場成地場況은京都兵庫筋及地場筋의賣押으로三十七圓七十二錢에場을始한後地場及京都筋의利喰買物이急出하엿스나六十七錢으로反落하엿다此邊에는賣氣稱濁하야六十九錢으로返戾한後更히七十二錢으로跳返하더니結局株式綿絲의高調와共히七十八錢에硬調히場을止하엿다고

各地止價

	六日後止	昨止比較
大阪	三七、七八	四三低
東京	三九、〇六	二九低
兵庫	三七、七四	四四低

阪仁氣配

大阪	三十七圓八十錢	二錢
仁川	三十四圓六十三錢	四錢

◇各限俟合◇

下關		三七、六八	三九低
桑名後		三六、六九	四低
名古屋夕		三七、一八	五一低
金澤		三七、三一	四五低
熊本		三七、六〇	三七低
仁川		三四、六一	二四低

六日後場

買方 / 賣方 (當限 計一五、〇〇〇石; 中限 計八、六〇〇石; 先限 計二二、四〇〇石)

買方		賣方	
[illegible]	二、七〇〇石	[illegible]	二、二〇〇石
[illegible]	三、〇〇〇石	[illegible]	九、六〇〇石
		[illegible]	一、〇〇〇石
		[illegible]	五〇〇石
		[illegible]	二〇〇石
		[illegible]	五〇〇石
[illegible]	四〇〇石	[illegible]	二〇〇石
[illegible]	四〇〇石	[illegible]	三、八〇〇石
[illegible]	一、四〇〇石	[illegible]	一〇〇石
[illegible]	七、一〇〇石	[illegible]	一〇〇石
[illegible]	三〇〇石	[illegible]	四〇〇石
		[illegible]	三〇〇石
		[illegible]	一、六〇〇石
[illegible]	四、〇〇〇石	[illegible]	三、三〇〇石
[illegible]	三、〇〇〇石	[illegible]	三、七〇〇石
[illegible]	一、〇〇〇石	[illegible]	三、〇〇〇石
[illegible]	五〇〇石	[illegible]	一〇〇石
[illegible]	一〇〇石	[illegible]	三〇〇石
[illegible]	一、〇〇〇石		
[illegible]	一、三〇〇石		
[illegible]	二、一〇〇石		

東拓移民이 放銃威脅 二百名小作人의 抗拒!

作人代表崔昭煥等五名被逮

륙일정오경에북률면에서또충돌 刻刻惡化하는北栗爭議

재녕군북률면(載寧郡北栗面)에서동텩주재소원(東拓駐在所員)과 집달리(執達吏)의무리한폭행에작인삼백여명이대항하야큰싸홈이 이러낫다함은이미보도한바어니와륙일오전십이시에도동텩주재소 원과집달리한사람과일본인이민(移民)이십여명이출동하야함부로 가차압(假差押)을하랴함으로이백여명의작인이반항하야또싸홈이 이러낫는데 일인들은미리준비하야가지고갓던총을노아서군중을위 협하야형세가매우험악하게되얏스며소작인대표자최소환(崔昭煥) 김계윤(金桂潤) 송재현(宋在鉉) 신나섭(申那燮) 신광록(申光祿)등 다섯사람은경찰에게검거되얏더라(륙일오후사리원뎐화)

最後行動準備 이와가티형세가각각으로험악하여감을따라작인일동과디방청년들은극도로흥분되야마츰내약자의 무긔는단결밧게업다는의미하에서결속하야 대항코자하는중인데동텩편의행동여하에따러서는엇더한극단의행동이잇슬는지도모른다더라 (륙일오후사리원뎐화)

普天教撲滅運動

望日을機會로兩地에서

마산에정교부를설립하고자 셈지락거린다고일반이분긔

각처에서보텬교(普天教)박멸운동이 일어남은 세상이다아는바어니와 근일에마산(馬山)디방에도 그추악한분자들이 근거를두고자하든형세가잇서소위마산정교부(馬山正教部)라는것을설립하고 무엇을 셈지락거리고자하는데 이것을본 당디인사들이 그대로 방임할수가업다고 하야 여러가지로 박멸할계획을 강구하든중마산청년회(馬山靑年會)와 련합을취하야 촌락에까지라도보텬교의 분자가 잠복하지못하도록활동할터이라더라(마산)

◇決議事項

一、오는십오일새진대회(索隱大會)를긔회로하야 보텬교의 죄악을긔록한『비라』오천장을 산포할것

一、구역을아래와가티네곳으로 난호어선전인세사람식을둘것

一、십이일에창립총회를구락부에서 개최하고 구톄안을토의할것

◇參加團體

靑年會 勞農同友會 勞星社 修養團 崇武團 魚市場共助 靑年會 無產少年團 佛教靑年團

永興校停學生 父兄會의善後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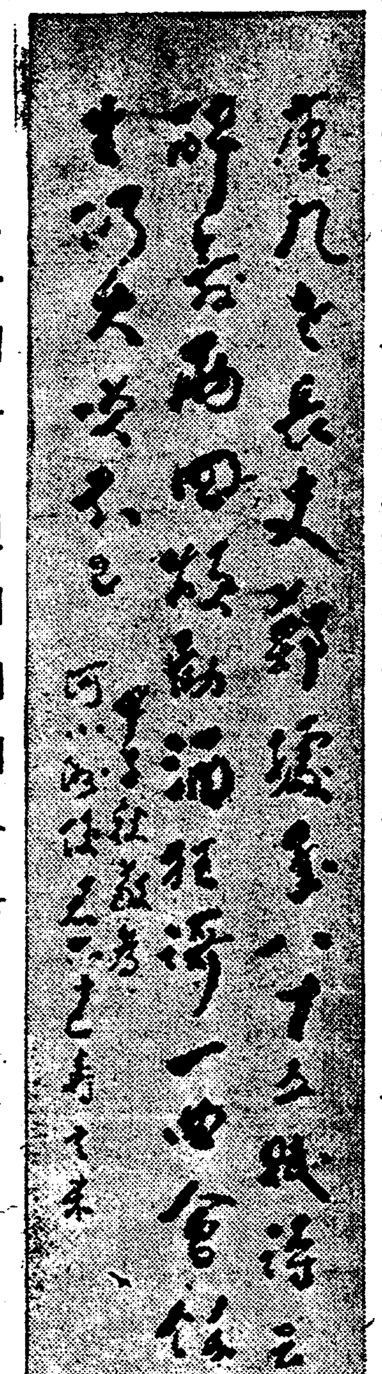
어린이에게돈재촉하는법 제발좀폐지하면조켓다고

함남영흥(咸南永興)공보교에서 지난달이십칠일부터각학급생도 삼백명이나되는다수의어린아이를 수업료아니낸다고 무참히뎡학하엿든바 그후뎡학긔일인 지난이일에 이르러도 수업료를내고복교한자가 삼분지이밧게 아니됨으로 학교당국에서는 다시 뎡학당한생도의부형을소집하야 원만히 타협하고

엇던처분 을하리라함은 긔보하엿거니와 그회의 과일 지난오일에 학교에온 부형이불과몃십명에 지나지못한 중에도 거의전부가 톄의과립의 무산자로서 자톄의교육을위하야 몃주일후에 수업료를 바칠터이니뻘리복교식켜달라고 교장을 향하야 애걸복걸하는광경은 참아볼수가업다하며 학교당국의 태도는수업료를 아니내면 절대용서할수업스며금후

군면당국 에조회하야최후까지자산업는자를됴사하야다시퇴학처분을 단행할터이라는데이에대하야 일반 학부형들은 원래수업료란것이 학교비로 군당국에서 징수하는것이엇 금후로는 학교선생들에게 위임치말고엇던방법으로써 군에서 취급할디경이면 첫재조흘것이 데납자부형에 대하야는 상당한수속을하드래도학생은

그냥통학 될것이며둘재 교수하는 선생으로서 어린아이에게대하야 돈을내라고 금전상 고통을 주기까닭에 사데지간에 정의까지 상하는폐해도 업슬것



◇고 백 당 현 채 씨 의 유 묵

學校建築에 사유림벌채하고

고소를당하게된나

성천군룡중면(成川郡陵中面)에서는 학교교사를건축하고자 홍학계를 조직하야 일반주민에게 수만원의 금액을모집하여 가지고 핑장한교사까지 건축하얏는데 면장의권형으로 재판사건도 만히 일어낫는데 그중에도심한것은 학교를짓는다는 빙자로룡중면창의리(昌義里)리희조(李希朝)의소유림야에서소나무이십륙본을 벼혓는데 그나무는묘디(墓地)부근에 잇스며 나무도조흠으로 일주(一株)십원의 가티가잇다는데 그때 리희조는장원도에 려행하엿슴으로 잇지안햇는바 주인의 승락도업시버혓다고소송을데긔하리라는데리희조의주장은학교교육을찬성할뿐더러 자긔에게 승락을구하면봄론이의도업섯슬것이나남의인권을무시한행동을묵과할수업다하야 그와가티한다고하더라(성천)

組合費再徵으로 면민이대소동

긔괴한성천잠사조합 령수증도업시바더가

근일성천군 룽중면(成川郡陵中面)에는성천잠사조합원김모(成川郡蠶業組合員金某)와 면서긔리모(面書記李某)가각리를돌아다니며매호에서삼십전혹은륙십전식잠사조합비라는것을징수하는데 그돌은아모령수증도업시십년도분과십일이년도분까지도바더가는데양잠(養蠶)을하지안튼집에까지바더간일이잇스며또는별서그동리구장에게지불한것까지모른다고하며서재차징수한일도만타하며더욱히령수증을청구하면우리가바다가는데무슨령수증이냐하며그대로갓다는데이로인하야공조합에서조합비를밧는대령수증도업시밧는것은긔괴한일이라고의아중에잇스며면옥하는에도아니전사람에게바라감은 잠사조합의전례(前例)를알수업다하야대단히소동중이라(성천)

端川署繼續活動

모단원네명을잡고자

함경남도단천(咸南端川)경찰서에서는 수일래로 비상활동을게시하야 관내각처로 중대범인을 데포코자 형사의일대가 출장수색중이라는데 사건의 내용을절대비밀에 부치어 발표할자유는 업스나 정보에의하면 ○○을가진○○○네명이 잠입한 형적이 잇는듯한까닭이라더라(원산)

犯人逃走로 春川署大騷動

잠복한곳을알고다시잡엇다

춘천(春川)경찰서에서는 지난일월삼십일일밤에 돌연히 서원을비상소집하야 무슨 중대사건이나 잇는것가티 한참동안소동을 이르켯섯다는데 이제그자세한내용을 드건대 그날경성종로경찰서로부터 일본인순사 한명이엇더한 범인하나를 압송하야 자동차로 춘천서까지가다가 춘천읍에서 약이십뎡가량되는 공지천(孔之川)근처에서범인이뚱이마렵다고 잠간차에나리기를 간청함으로 자동차를 뎡지식히고 뒤를뵈이고자할지음에 범인이 또손목에채운 고랑을잠간만 풀러달라고함으로 조곰도 의심업시 고랑을풀러주엇든바 범인은 뒤를아니보고 곳산속으로도망을감으로 그순사는 죽을힘을다하야 쏫처갓스나 결국잡지못하고 춘천서로가서 이러한사실을 말하얏는데 당서에서는즉시 서원을비상소집하야 사방으로 대대뎍활동을한결과 지난이일오전구시경에 춘천읍 약사리(藥司里)에잠복한것을발견하고 곳데포하얏다더라(춘천)

玄白堂葬儀

구일포천에서장사

백당현채(白堂玄采)씨가장서하얏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장일은 구일로 결뎡되얏스며당일에 포천군가산면방축리(抱川郡加山面防築里)선산에 안장할터이라는데 발인은 재동구십구번디자뎍에서 구일 오전두시에 하리라더라

殉職한電工의

부친에게위로금

톄신국(遞信局)소관통산부선뎐신국(無線電信局)뎐신주수리공사중에약이십척가량되는높흔곳으로부터 떠러져서 마츰내사망한동국직공소뎐뎐길(小田傳吉)의실부에게 어번에 톄신국현업원(現業員)들은그위로금으로돈이천사백칠십팔원을모집하야주엇다더라

密陽救濟劇 성적이조핫다

밀양청년회(密陽靑年會)에서는 긔근구제소인극단(饑饉救濟素人劇團)을 조직하야 동아일보지국과본사지국의후원으로밀양예기권번(密陽妓券番)으로출동하캐하야 청년회간부 십여명과지난일일 부터 삼일간을예기조합에서흥행하엿는데 대성황을 이루엇스며 따라서 동정금 이백원에 달하얏는바 실비를제한외에는 불일간조선 긔근구제회로 보내라는데동정인사는다음과갓다더라(밀양)

一金[illegible] 一銀行密陽支店、密陽體南樓朴海鎭、朴齊欽、尹致秀、谷十圓密陽靑年會 …… 王守、黃翰秀、陳起軒、金貞達 太基烈各五圓 金福洙 裵洞 東亞日報密陽支局 朝鮮日報 密陽支局各三圓 前川運送部 李貫壽 裵三剛 無名女史 無名女史 趙春仙 朴祥珍 朴仙鎰 竹子 丁錫珠各二圓 李守達 金永奎 金蘭玉各一圓 朴春琴二十圓 計百四十 九圓 入場料計 約五十圓

七年積功도一朝虛事

運命에翻弄되는一新校

경남도령이전문데가업서진뒤를이어 재단여시존폐문데가생긴일신고보교

裏面에活躍하는當局의黑手!

한동안세상의막대한주목을쓰러오든경상남도도령이전문데(慶南道廳移轉問題)가식어지자그뒤를이어뜻밧게난데업는진주일신고등보통학교(晉州一新高普)경영에대하야공립(公立)으로하느니사립(私立)으로하느니하는문데가발생되여역시적지아니한의문을세상에전하게되엿던바지난삼십일에그학교경영은아조당국(當局)의로넘어가게되엿다는데이에지난긔미년(己未年)으로부터이래륙칠년동안긴세월을두고경상남도전도민(慶南全道民)의피와땀으로써수립된그학교가일조에남의수중에드러가게된그동긔의전말은다음과갓다더라

道知事의契酒生面

륙칠년적공이남무아미타불

진주일신고등보통학교경영이도당국으로 넘어갓다함은 별항보도와갓거니와 그학교로 말하면 세상이다 아는바와가티 과거륙칠년동안 경남도민전부의 혈청으로 오십만원의 긔부를어더그중에서 벌서삼십만원은 적립와지한후 작년가을에 사립일신고등보통학교(私立一新高普)의허가까지나게되여 방금일반삼천평이나되는 넓은긔디에다 교실을건축중이며 오는사월에는 개교(開校)코저 교원인선(敎員人選)까지 전부완뎡되여잇는데여긔에 돌연히 공립문데가나게된것은 지난번도령이전 반대운동이실패에 도라가게되는동시에 그때 도지사가 총독부에까지 왓다가 도라와서 진주시민에게 대하야 말하기를 이번그도령이전은 벌서 결뎡된일이닛가그대신에 진주시민에게 유리한사업을 시설해주겟는데 첫재로남강(南江)에 텰교를가설하고 둘재는 수력뎐긔(水力電氣)를 시설하고 셋재로 공립고등보통학교(公立高普)를설립해주겟다고함으로 시민일반은 커욱이감사하게생각케되엿섯다

一新當局者의難境

도령의나려누르는수단에

도지사가새로진주에공립고등보통학교를설립해주겟다는것이엇지일신고등보통학교의명의만을변경하려는 것인줄을 알앗스랴오 그후곳일신학교 책임자를불러말하기를 일신학교의 긔디와 적립금중이십만원을도당국으로 넘거주면 그것으로 관립고등보통학교를 만들터이고 그남어지 삼십만원(이십만원은 아직드러오지안은것)으로는 녀자고등보통학교(女子高普)를설립하는것이 엇더하냐고함으로 그때갓던 일신고보의 책임자들은 놀라지안흘수업섯는데 다시 지사는리사회(理事會)를열어결뎡하라고 강박을함으로 리사회를 열엇스나역시 부결이되는동시에 리사회에서는 다시 세가지의견을드러 도당국에데출케 되엿는데첫재로는 녀자고등보통학교를도당국에서 경영하던지 둘재로는 긔디와 이십만원을 데공할터이니도당국에서녀고(女高)를경영하던지 셋재로는 이십만원을부조건으로 긔부할터이니 도당국의임의대로고보(高普)를설립하라는것인데 여긔에대한 도당국의답변은 첫재와둘재는 조선각도에서아직남고(男高)도설립한기전에녀고(女高)를설립한권례가업스니 할수업고 셋재는시민들이 응치안을터이니 할수업다고 모다부인이되여 쌍방의의견은통일키어렵게되엿섯다

警官威壓下에 評議會

일신고보의 운명을결뎡한일막

이에 도당국에서는 룽란한희유책(懷柔策)을사용하야 시민몃사람으로서 녀자고등보통학교 긔성회(女高期成會)를조직케하는동시에일면으로는 평의회원(評議會員)을개인으로 군청으로불러간다 경찰서로 호출한다하야가지고 여러가지로 위협을하야 평의회를열고 일신학교 사립경영과공립경영에 대하야 결뎡하게되여 지난삼십일 오후두시에 진주시내경찰서장이 입회하고 평의원가운대출석자가 불과 삼십인밧게 안되는데 경찰당국과 도당국이 데다수로 찬성한후 그날경찰의 시위가 엄중한것을보고 디방에서 와던 평의원중에는 그러지와서도 참가치못하게되엿는바 소위 외사진행이라고도례가서 마매의견교환이 업시 곳『일신고보를공립으로하는것이조타』는사실을 손을드러찬성이 되여 지난삼십일 오후두시에 오래동안피땀을흘려 니은 일신고보가도당국으로 넘어가게되엿인데이에 그문데는그대로 잠잠과되지안코 문데가 이러날것이 가 보인다더라

全道民을無視함에

분개하야반대긔세가만타

진주일신고등보교의 경영자는진주시민(晉州市民)만이 아니고 전경상남도 도민이오 또는오십만원이나되는 긔부금 가운데진주민중에서 긔부한것은 다만이만오천원 밧게 안되는데 소위평의회석상에서 일신고보 문뎨를결뎡한 사람들은 다만삼십인은진주안에 사는 사람임으로경상남도 전데로보아서는 너무범람한일이오 또는무시하는 일이라하야 벌서일부에서 반대의긔발를 들게됨으로 그문데가장차엇더케 뎐개될는지 자못주목할만한문데이라더라

娼妓房에窃盜

자던거타고쳐도적

사일밤 새로두시반경에 통산대도뎡(大島町)팔십번디박모의집에잇는 창기(娼妓)김산홍(金山紅)(二三)은 커의객실에서소쉬에심취하여잠들고잇는동안에절도가침입하야 금궤조리업시열고 바로그밧안에두엇던치마십여원자리를절취하여갓다는데 절도의도망한자리에는 자던거부속품이떠러저잇슴으로아마자던거를타고다니는절도인듯하다더라

五分島에老人屍

일부러빠진듯

인천(仁川)해안오분도(五分島)란섬 부근에서 시톄한개를사일아침아홉시경에 발견하고 인천서(仁川署)경관과 항부의관이 급행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그시톄를 검시한결과 주소를 모르는 최정희(崔鼎熙)(안정읍으로인하야관명)란 나희며략칠십여세된 로인인데 의복으로 추측하면 로동자이며일부러 물에빠져자살한것이 확실한바 그근처 방파뎨(防波堤)에는 고무신한커레가잇는것으로보아 그곳에서 당일새벽한시경만조시에 물에빠진듯하다하며 그고무신잇는곳에는 글자가흐리나 꽉크리린 우에다가인천부화정(仁川府花町)최(崔)라고연필로쓴자취가잇섯다는데시테는위선부령에서매장하엿다더라(인천)

愛妾이逃走

천뎡에못가서 다려난모양이라고

황해도황주(黃海道黃州)읍성남리(城南里)에사는 조봉학(趙鳳學)의첩주씨(朱氏)(二九)는 지난일월에 돌연히 종적을감춘후아즉것 누구나 그의간곳을 아는이가업다는데 이제그자세한것을 드른면 권긔조봉학은 나히삼십이넘도록 아들하나업는것을 유감으로녀기든바 작년에이르러는 평남중화(中和)군에서 주씨를 첩으로 어더온후 아들낫키만심하고대하여오든중 지난일월에는 마츰일요일밤임으로집안사람들은 회당에례배보러가고 아모도 업는틈을타서 자긔의물건은 모조리가지고 어듸로 종적을감추어 버리엿다하며 남들의 권하는말을드르면 주씨(朱氏)는 작년에 싀집온후 지금것본가에 한번밧게안보내엿는바 방금유력 정초가되야 남들은 본가에를가고오고하며 야단인데 자긔만남과가티 본가에도 못가고싀집살이하는것이원인인듯하다더라(황주)

前科者又逮捕

서대문에잡힌사

고양군룡강면동막리(高陽郡龍江面東幕里)사백팔십오번디에 원적을두고 일뎡한직업이 업시 도라다니는전과일범(前科一犯)인홍재두(洪在斗)(三八)는출옥된지얼마되지도 아니하야 역시예전행습을 버리지안타가 지난일일에마츰내 절도혐의자로 서대문서원의손에 검거되여 그동안 취됴한결과 지난이십일에 공덕리(孔德里)륙십팔번디 문긔환(文基煥)의집에서 두루막이 륙원자리와 동이십륙일에 동리삼십팔번디 류희봉(柳熙鳳)의집에서경제회 이원삼십전자리와 또 합동(蛤洞)팔십육번디 우창규(禹昌奎)의집에드려가서칠구칠원자리와 동이십팔일에 죽첨뎡삼뎡목(竹添町三丁目)일백구십팔번디남용우(南容祐)의집에서 그릇팔원어치를 절취하야 모다 뎐당하엿다는것을자백하엿는데 여죄가잇는듯하야취됴를계속중이라더라

女子教育會素人劇

개성녀자교육회(開城女子教育會)에서는 금칠일 즉음력정월 십오일 하오칠시부터당디중앙회관(中央會舘)에서 소인극대회를개최하리라는데 이에고려청년회(高麗靑年會)와동아시대본사지국(東亞、時代、本社支局)의 후원으로매일뎐습을하는중에잇고 출연인물은 전부동회원인녀자들이며 상연할 각본은 세계뎍 대문호『쎄쓰피어』의명작『베니쓰상인』과 김영보(金泳俌)씨작『치정삼미』(痴情三昧)를올릴터이라는데 등장 인물은 전부녀자로서 남녀를 물론하고 관람을 허락하기는 금번이처음일뜻한데 수입전부는 동회의경비에충용한다더라(개성)

詐欺賭博者

두달만에발각

강원도 텰원군(鐵原郡) 황수백(黃壽百)(三六)과고원군선내면황송리(高原郡鮮內面黃松里)이백삼십사번디 서택주(徐澤周)두명이공모하야가지고 작년 십이월이십일 오전열한시경에 원산부대잔교(元山府大棧橋)근처에서 황해도김천군김천면마전리 (金川郡金川面馬前里) 일백사십삼번디에사는우식(禹植)이라는사람을 도박하자고꾀이여 당디지나뎡(支那町)으로가서현금사백사십오원을 편취한사실이 근일에이르러 발각되야 전긔두사람은방금원산경찰서에서취됴를밧는중이라더라(원산)

妙齡美人의窃盜

전후범행이여러번

진남포 (鎭南浦) 비석리 (碑石里) 오십오번디에거주하는최병화(崔炳花) 라는당년 십구세의 묘령미인은 지난일월 이십삼일 오후열시쯤되여 그곳후포리(後浦里) 중국인 (中國人) 목욕탕에서 목욕하러온 비석리 (碑石里) 팔십일번디뎐동근(田東根)의처박병원(朴炳元)이의복을버서두고 탕에들어간것을 긔회로역여칠십여원짜리되는금반지한개외에 지폐은전몃원을 합하야 삼원칠십이전이드러잇는주머니를 절취한 외에후포리비석리 방면으로다니면서 박과낭을 가리우지안코전후다섯번이나남의집에

進退維谷의 在滿農民同胞

이주하는사람은만코 농사지을짱은업다고

고국에서 구축을당하고 할수업시남부녀더하야 슯슯한 남북만주(南北滿洲)로 이주하는 동포가만타함은 일반이다 아는바어니와 근일에는 남만주에서또구축을당하야 도로고국을향하는이가날로 증가한다는데 그자세한사실을 듯건대 남만주에이주한동포들은 중국사람의 영을맛해식작뎡하고사서농사를시엇는데근년부터는중국관령에서조선사람에게는영을밀지못하게함으로 할수업시 농사를 지을데가아니라 이미짤엿든영도 긔한이되면 다시는더어들길이 업슴으로부득이 농사도못하게되야 도로고국을향하는이가만코 또는오도가도못하야 사방으로 방황하는이도 만타더라(안동현)

松板盜失하고 경찰서에고소

시내남대문시장내 홍서톄이호(南大門市場內洪西第二號)에서 시탄상(柴炭商)하는리봉수 (李鳳洙)는고양군룡강면창천리(高陽郡龍江面倉前里)에사는 김영묵(金永默)을걸어서대문서에고소를데긔하얏다는데 그 내용을 듯건대 전긔리봉수가 작년십일월경에 연희전문학교로 부터 송판 팔백사십삼북금과 장작구십구두마를사서 연희학교구내 산야에쌓어두고 순시인을 두어서 살피게하엿는데지난십이월부터 일월상순까지 그동안에송판 십사북금과 장작일백사십륙금이업서젓슴으로 그뒤를 엄밀히 감시하던바 얼마전에절도일명을 발견하야 창천리주재소로 보내여 취됴한결과도는전긔 김영묵과가티 그시몽을 가져갓다고 자백함으로 곳그집에가서 수색을한결과 만흔장물을발견하엿는데 김은그것을 삿다고항의으로 그사실을 분명히사하야 전긔김영묵으로부터 란대금 백칠원팔십전을 배상하게해달라는리유로고소를한것이라더라

日時	二月十三日(金)十四日(土) 每夜七時
申請	二月七日까지 朝鮮日報平壤支局
演士	中等學校、靑年團體名一各式
其他	講演每人二十分、演題는各自隨意 場所追後發表
主催	平壤青年會
後援	東亞日報平壤支局 時代日報平壤支局 朝鮮日報平壤支局

全朝鮮學生、靑年懸賞雄辯大會

朴趙兩氏出獄

각각벌금백오십원

전남순천군 황뎐면(順天郡黃田面)농민대회(農民大會)회장 박중림(朴重臨)씨와 부회장조봉모(趙奉模)씨는 당디 악디주가 소작권을 무리히 이전함에대하야 반항운동을하다가 작년오월경에 구소작인을위하야공동경작을하얏다는 혐의피의자로 순텬법원지청에서 팔개월의 판결언도를 불복하고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하얏다함은 이미보도하얏거니와지난 사일에대구 복심법원에서 삼시판사(三矢判事)의 심리로공판이 열리엇는데 방청석에는 조선로농총동맹 (朝鮮勞農總同盟)집행위원 권오설(權五卨)박명두(朴明斗)량씨를 비롯하야기타 방텽객이 만헛스며 벌금각일백 오십원의 언도가잇슨후오후오시에 방석되얏다더라(대구)

工夫壓死

산이문허지며 치어서누참히죽어

함남함흥군 하조양면 봉하리최뎡삼(崔貞三)(二七)은얼마전에 벌이를하기위하야전남포부(鎭南浦府)로와서한두리(漢頭里)륙십이번디최성권(崔成權)의집에묵하면서 그곳한두산(韓頭山)토목공사에 인부의 일을하든중 지난일월삼십일일 오후세시경에 흙이문허저서그아래에 치여내장이파렬되야무참히 죽엇다더라(평양)

路邊에厭殺兒屍

범인을엄탐중

평양부동뎡(東町) 정중석(鄭重錫) 이란사람이 지난삼일 오후한시경에 부외 서청리(西城里)평양역뒤人길을지나다가나흔지 삼사일된산애아이 시톄를 발견하고평양경찰서에 보고 하엿슴으로 동서에서는 경관이출장하야시톄를검험한후해부한결과코와 입을막어 죽인것이 분명함으로목하범인을엄탐중이라더라 (평양)

自働電話機械를 파괴한범인

인천서에서데포에로력

인천축항(仁川築港)안에설치한 인천우편국(仁川郵便局)자동뎐화긔(自働電話機)를 엇더한자의소위인지 파괴한것을 지난이일에야 비로소 발견하고 인천서에 고발하야방금됴사중인데 자동뎐화긔는 일반이아는바와가티 돈이 드러가 모이는터이라 이돈을 절취하고자엇던자가 그가티 파괴한모양인데 금긔의 피해까지는 보지아니하엿다더라(인천)

密賣淫女拘留

남의패물을빼앗다가

진남포(鎭南浦)경찰서에서는수일전에술갑삼원에금시계와금반지오십여원어치를 빼앗겻다는 절은이 김경걸(金敬吉)이란 자의 구두설유원이 잇서 동서에서는 곳상대자되는후포리(後浦里)일백오십륙번디 술장사문병권(文炳權)의첩김경자(金景子)(二三)를호출하야 사실의 뎐말을취됴한결과 사실은 술갑이 아니라 그녀자와 다른관계가 잇는것이 판명되야전긔김경걸은그대로돌려보내고 김경자는 밀매음죄로 즉결구류에처하엿다더라(진남포)

判事突然來寧

사건은별로큰것이아니다

금월삼일신의주 디방법원 강상예심판사 (新義州地方法院江上豫審判事)는 김서긔를인솔하고 돌연히 녕변(寧邊)에 출장하엿슴으로 또무슨중대사건이나 발생함이 아닌가하고당디일반은그진상을알고저 하는바인데 탐문한바에의하면그다지중대사건은 아니오 림용제(林鎔齊)에 대한 방화혐의사건외관계증인과거리두어가지사건을됴사하기위함이라더라(녕변)

江華에또火災

지난삼일하오 한시경에 강화군부내면신문리(江華郡府內面新門里)일백오십번디 박경복 (朴景福)의집에서 불이낫는데 경찰서원권부가출동하고 소방조 원들이진력한결과 즉시진화 되엿는데원인은 박경녹의 모친이담배를 고솜을 피여서문밧게 내여노흔것이 실화되여 집봉으로 치부튼듯하다는데 손해는 아즉미상하다고(강화)

自働車등살에

행인과시민이불평

강원도양양(江原道襄陽)디방에 금년 동긔에는 눈이만히온데다가 더욱이 일긔가온화하야도로전부가 진흙구덩이가 되야행인의 고통이 심히곤난한중에도 양양관내에 잇는각승합자동차에는 흙밧기를 달지아니하고운뎐함으로 진흙과흙물이 튀여일반 행인의의복을버리게 됨으로모든행인들은자동차를피하다가 길옆잇집원머리 의복세타하기에 매우분주하든중 지난음력이십오일물치(沕淄)장에서는 설며목욕 당하야 매매하기에복잡한가운데 길바닥은 물이되여잇슴을불고하고 자동차는 급격한마력으로 몰어다라남을 인하야좌우에 라렬한상품은 전부흙투셩이를 만드러서 일반행상에 막대한 손해를 씨것슴으로일반인민은 더욱불평을 늣기는데경찰당국에서는 취태할 권리가업는지이것을동한시하는것갓다더라(양양)

少年보름노리

작야첫날성황

시내각소년단데의련합 『보름노리』는 작야경운동 텬도교긔념관에서 개최되야 눈비가옴도불구하고셩황을 이루엇는데 데이일인 금일밤에는새로운연극도 세가지나 할터임으로 더욱셩황을이루리라더라

饑饉義金 구제회에온바

▲論山郡城東面院北里光興親睦會의活動으로十一圓三十錢 內譯▲朴魯甲趙東琪各二圓▲朴鴻來、金鍾稷、李啓赫、宋寅洙、劉弘烈各一圓▲尹商均、金永鏞、金月圭、李象卿各五十錢 ▲吳顯洙三十錢

▲累計五千九百五十七圓一錢

휘파람

▲은행에는 두취요 회사에는 사장인 모실업가는무당관수를 죽으도불러다가자긔집에서 굿을하엿다 ▲그리유는자긔집에 단이던간호부 쌍둥이 원귀가되여울가무서워서 도액을한것이라고 ▲그집에 단이던 사람으로서 죽은사람이 한둘이라아마도일년동안에굿에쓰는데 산이 돈삼만원은 되여야하겟지 ▲그런데 엇던사람의말에는 그가굿을하면 그의부하들이 무당관수에게 돈을흠쓰듯하니가 떼로예산까지 셈것은 업스리라고 한다 ▲그도 고이찬타아무러런지 두취나사장의 곱게는뵈아될것이닛가 ▲이것이 실업계의공긔라고하면 미두군은 실업계에서도선진이다

련리지 連理枝 (10)

소요산인

산중의방황

요긔를만뒤에 두사람은 비로소 큰일낫다는 생각이낫다집에까지 다려다줄사람이 업슨것이다 무슨일을당하던지 겁을내지안는「돌」이는「빌지니」에게 말하엿다

「우리돌집은 남쪽에잇스닛가 아츰에 올째모양으로 커긔뵈는 커뫼죽한 산봉데봉을 넘어가면 된다 자아가세!」「삼봉데봉이라하는것은 파여를뫼집 근처에 잇는 삼봉데봉이엇다 두사람은 흑하의 북편산을넘어서 나려가다가 한시간뒤에는 엇던 넓다란 내물가에나섯다 이내물은 두사람의 갈길을막엇다 이쳡에는산림이 무성한까닭으로 아직도사람의 발자취가 잇지못한곳도만흐며 밤에서 내와산에 눈얼음업는것이만엇다 두사람압헤 나려난내물은 바위돌뒤로 거품이 일며 나려갓다 콸콸거려 큰놈조녀는『빌지니』를『돌』은나게하여서 한여울쪽으로 것너갈용긔가 업섯는고로『돌』은『빌지니』를엽고 급한물결을 거슬너건너갓다

「무섭기는 무엇이무서워 돌이잇스면 나도맘이든든해 앗가 그농장주인놈이 만일『빌지니』씨청을안들엇스면 나는 그놈과싸우랴고햇는데』하고『돌』은 말하엿다

「무어요?』하고 『빌지니』는 소리를질럿다「그 과운자고 섬슭구진 사람과 싸우다니? 에그 내가 정말 무서운곳에 당신을 다리고 갓구려아아조흔일을하랴면 엇지그리 힘이드는지 힘안들고 되는것은 못된일뿐이야!』

『돌』은 내물을건넌뒤에 독빌지니『를엽은 채로 반시간 이나 거러가야할 삼봉데봉까지 너가라고 생각하엿다 그러나마에괴운이 진하여서『빌지니』를 날여노코 두사람이 나란이 안저 쉬수밧게 업섯다 그때에『빌지니』는『돌』을보고 말하엿다

『돌』씨 벌서해가 질우랴는데 나는 원긔가지치자만은 당신은 아직도 못못하니 나는여긔내벼려두고 먼저집에가서 어머님네가맘을 노시도록 하시구려』

『아니나는『빌지니』씨를 두고 갈수는업서 이숩속에 해가지거든 불은만들어서 감람야자를따먹고 지내지 나는그입새를따서 집웅을만들어 줄터이니』하고 『돌』은말하엿다『빌지니』는잠간 쉬고나서 내가에서잇는 고목나무에 매달녀잇는 기다란고사리종류의 풀넙을 따서그것으로반구쓰가튼것을 만들엇다 어서밧비 조흔일을 하랴는생각으로구두도신지안코 온까닭에 몰뱌다구니에 발이버서진 까닭이엇다 『빌지니』는미구에 나무입희 싱싱한냄새를 맛고엄마콤 정신이나서 머물러거 집행이산어집고 한손으로는『돌』의 어개를 의지하야것기시작하엿다

이와가티 두사람은 삼림속을천천히 거러가고잇섯다 그러나두사람이 방향을명하고 가는삼봉데봉은 어느덧 삼림속에가리워서 보이지도아니하게 되엿다 지금넘어가고자하는 태양까지도 뵈지안케되엿다 얼마가노라닛 어느름에 지금까지걸어오던길은 간곳이업고 갈곳도업는나무와 댕댕이덩쿨과 몰뱌다구니가 험하게 널녀잇는곳을당도하엿다『돌』은『빌지니』를안커노코자긔홀도 사방으로 몰어다니며 이숩속에서 싸저나갈길을찻고잇섯다 그러나 아모리애를써도소용이업섯다『돌』은족삽형데봉이나 보일가하야 놉흔나무를올너가보앗스나 눈에 보이는것은 서산을넘어가는 햇빗에번거케물들어잇는 만수장텁 뿐이엇다 그중에서도 여러산들의그늘은 벌서나진영에잇는 나무숩놀컴컴하게만들엇다 바람은 언제던지 해질머리에 보는거와가티 종적을 감추엇다 삼림속은깁흔침묵가운데에 잠젓스며 이고요한곳에 잠자리를찻는 사슴의우는소리가들닐뿐이엇다『돌』은혹사냥군이듯고 차저와줄가 하여서뎡허노코 소리를 질너보앗다

『사람살니오『빌지니』를 살니오!』

그러나 그소리는 건너산에울녀서

『빌지니』를! 『빌지니』를!

하고멧번이나되풀어들닐뿐이다

◇취소 륙일에게재된본란소설은사원에 거재된소설이 편집상 착오로중출되엿기로 그런문을취소함